



# 배용준 관련 인쇄물 국내외서 인기

## 프리미엄 상품 'BYJ다이어리' 연속 매진

한류스타의 대명사인 배용준 관련 다이어리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발매되어 국내에서 2년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는 배용준의 이니셜을 따서 'BYJ다이어리'로 명명했다. 일본에서의 판매는 지난 2005년 5년 연속으로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레드와 퍼플의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으며 전체 작업 공정 가운데 3~40%가 수작업으로 진행된 배용준 다이어리는 그 기획과 제작과정 면에서도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이어리와 캘린더 등 배용준 관련 인쇄물이 일본에서만 연간 30억 원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1만 4천여 권 제작, 모두 소진돼

일명 '윤사마 다이어리'는 2009년에도 수년째 이어진 매진행진을 이어 갔다. 구랍 12일부터 국내 팬들을 위해 판매를 개시한 배용준의 이니셜을 딴 'BYJ 다이어리'가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지난 2005년 일본이다. 당시 배용준의 소속사 측은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일본에서는 冬のソナタ로 불림) 덕분에 일본에서 절판됐을 정도로 인기를 얻자 이에 고무되어 지난 2008년 다이어리부터는 국내에서도 배용준 다이어리를 선보였다.

'윤사마 다이어리'는 일본에서 처음 발매된 2005년에 주문의 폭주로 5월이 되어서도 재제작에 들어가는 등 큰 히트상품이 된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매가 시작된 첫해인 2008년에 매진을 기록한데 이어 2009년 다이어리도 초도생산 물량 1만4000권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철저한 기획과 제작 거친 명품 다이어리

2009년판 'BYJ 다이어리'는 빨간색과 보라색 표지의 두 가지 형식으로 출시됐다. 인당초 무늬가 인쇄된 용지를 사용해 전통미와 현대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이어리의 기본적인

기능인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코너 외에 배용준의 사진과 신상명세, 배용준이 운영하는 한국, 일본의 레스토랑을 담았다. 지난해에 이어 2009년 다이어리의 인쇄 및 제작을 진행한 투데이아트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스타일의 다이어리로 보겠지만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명품급 다이어리”라고 말했다.

북 바인딩 크로스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UV오프셋인쇄를 했으며 일반적인 세로 밴드가 아니라 가로 밴드를 채택했다. 이처럼 자동화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전체 제작과정의 약 40%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비용이 적잖게 들었지만 가격보다는 다이어리의 품격을 높이는데 주력했고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BYJ다이어리의 구성은 연간 계획표, 13개월 계획표, 58주의 주간계획표, 프리노트와 전화번호부 및 배용준 화보로 이뤄져 있다. 국내 판매가격 2만5000원선, 일본 판매가격 2200엔선으로 비교적 고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성이 들어간 수제작 과정이 많아 다른 다이어리에 비해 상품가격에서 제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BYJ다이어리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류 스타인 배용준의 위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 고부가가치 인쇄 상품의 대명사, BYJ다이어리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BYJ다이어리는 동일한 인쇄회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표지와 내지에 각기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쇄된 것만 다를 뿐, 같은 용지를 사용하였고 같은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배용준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인 'bofi'에서는 배용준이 출연한 영화, 드라마의 DVD, CD를 비롯하여 각종 컬렉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09년 'BYJ다이어리'를 판매, 매진을 기록하는 호응을 받은 데 이어 일본에서 연초에 선물하는 관행인 복주머니를 세트 A, B, C를 각각 500세트씩 발매, 모두 매진되기도 했다.

가격은 1만500엔~2만1000엔으로 한화(1400원 기준)로 14만~29만원에 달하는 고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억여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린 셈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이번에 한일 양국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적색과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BYJ다이어리'이었지만 일러스트로 제작된 배용준 일러스트 다이어리는 별다른 마케팅 없이 조용한 가운데 발매되어 매진되기도 했다. 하드보드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흑색컬러밴드, 약 120페이지 분량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캘린더가 들어 있으며 월간 다이어리가 24페이지로 구성되었다. 패션, 무지 메모용지(소), 메모용지(대)로 구성되었다. 커버 사이즈는 125mm×160mm 이며 노트 사이즈는 105mm×150mm이다. 중량은 약 160그램 (발매원은 키이스트, 판매원은 BOF인터내셔널)

### 단발성 그치지 않고 지속적 상품 개발로 승부

비록 배용준이라는 대형 배우의 후광효과로 매번 매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있는 'BYJ다이어리'이지만 다양한 화보집은 물론 다이어리, 선물꾸러미 세트, 한국어강좌 교재와 일본과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친 '신의 물방울' 같은 만화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 상품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은 만들어 가는 마케팅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BYJ다이어리를 기획한 곳은 키이스트이며 총괄 제작은 설립 이래 엔터테인먼트 분야 인쇄에만 전념해온 투데이아트로 이들 회사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함께 해와 빠른 의사소통과 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신속하게 쉽게 처리하는 팀워크를 발휘해 왔다.  사진제공\_키이스트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